

교회 안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누리

3/18 월요일

아침의 누리

고전 1:2, 9, 24, 30

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에게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편지합니다.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24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30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습니다.

골 1:12, 17-18

12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 25:21, 23

21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23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 장 9 절에서 '교통 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교통과, 그분 안에 참여하는 교통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교통 안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으로 누리게 하셨다. 고린도전서 1 장 9 절 말씀은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그리스도에 관한 1 장 2 절의 말씀처럼 매우 중요한 사실을 다시 강조해 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 특히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믿는 이들의 유일한 중심이시라는 것이다.(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34-3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는 우리 모두가 부름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렸고, 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이심을 계시해 준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시다(고전 1:2).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우리에게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다(고전 1:24, 30). 그분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고전 2:7, 롬 8:30) 영광의 주님이시다(고전 2:8). 그분은 하나님의 깊이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시다(고전 2:10). 그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유일한 기초이시다(고전 3:11). 그분은 우리의 유월절(고전 5:7), 무교병(8 절), 영적인 음식, 영적인 음료, 영적인 반석이시다(10:3-4). 그분은 머리(고전 11:3)와 몸(12:12)이시다. 그분은 첫 열매(고전 15:20, 23), 둘째

사람(47 절), 마지막 아담(45 절)이시다.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고전 15:45),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누림을 위한 몫으로 적어도 스무 가지 항목의 풍성을 소유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일에 주의를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교통은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믿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교통이 되었고(행 2:42, 요일 1:3), 이제 이 교통은 우리가 주님의 상에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에 참여하며 누리는 교통이 되어야 한다(고전 10:16, 21). 이러한 교통은 그 영에 의해 수행되며(고후 13:14), 반드시 유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유일하시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분의 유일한 몸의 지체들 가운데에는 어떤 분열도 허락되지 않는다.

'교통'은 ... 우리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것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와 우리의 존재를 누리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상호 왕래가 있을 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상호성이 생긴다. 그리스도의 모든 어떠하심이 우리의 것이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떠함이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 ... 우리는 상호성 안으로 부름 받았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어떠하심을 누릴 뿐 아니라,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고 그분은 우리와 하나이시다. 고린도전서의 다른 절인 6 장 17 절에서 바울은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 안으로 부름 받았다. 이 하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누리고, 그분도 우리를 누리신다.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물론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를 누리신다는 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당신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린 자녀야, 나는 너를 매우 많이 누린다. 내가 너를 얼마나 누리는지 너 모른다. 심지어 네가 약하고 너의 상태가 비참할 때에도 여전히 나는 너를 누린다.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한 영이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 장에서 9 절은 2 절과 관계있다. 2 절에서 바울은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것이시고 또한 그들의 것이시다. 그분은 우리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믿는 이들에게 속하신다. ... 우리가 각처에서 부르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뉘이실 뿐 아니라 그들의 뉘이시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뉘이 되신다는 의미이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이다.(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 35-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5, 16

3/19 화요일

아침의 누림

빌 3:14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빌 2:2

2 여러분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혼 안에서 연결되고, 한 가지 것을 생각하여, 나의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십시오.

고전 2:7-8, 10

7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8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롬 8:30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시 24:6-10

6 이런 사람이 그분을 찾는 이들의 세대, 주님의 얼굴을 찾는 이들의 세대, 곧 야곱이라네. 셀라

7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러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8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시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시다!

9 성문들아, 머리를 들어라. 오래 견디어 온 문들아! 들어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라.

10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와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다! 셀라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의 기쁨을 넘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같은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다(빌 2:2). 이 책의 문맥에 따르면, 여기에서의 ‘한 가지 것’은 틀림없이 그리스도를 주관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것을 가리킨다(빌 1:20-21, 2:5, 3:7-9, 4:13).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온 존재의 중심과 전부가 되셔야 한다. 우리의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가운데 불일치가 생기게 된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은 훌륭했고, 그 도시에 있는 교회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에는 분쟁이 있었다. 그들은 영 안에서 하나였지만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 모두는 주님을 사랑했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사람들에게 혼 안에서 연결되고 같은 것을 생각하여 그의 기쁨이 넘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87-8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바울은 상을 위하여 풋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빌 3:14). 그리스도는 풋대이자 상이시다. 풋대란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다. 상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며, 신약의 경주에서 승리한 경주자들에게 주는 보상이다. ... 상을 위하여 풋대에 도달하기 위해 바울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했다.

위로 부르신 것은 상을 획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상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에서 곧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 하늘에 속한 부름(히 3:1)은 빌립보서 3 장 20 절에 있는 하늘들에 있는 국적과 일치한다. ... 위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데 비해, 이스라엘 자손을 부른 땅에 속한 부름은 물질적인 땅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쫓대를 정하시고 상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보아야 한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에 관한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선한 경주를 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 모두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빛나는 장래에 주의를 기울이자. 이러한 장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분을 얻고 그분을 최고도로 체험하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2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서신서들, 메시지 349, 53-54 쪽)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가 한 가지 것, 즉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만을 생각하도록 돕는다. 우리 모두는 몸의 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생각한다.

한 가지 것 이외의 다른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한 가지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형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중한 문제이다. 불평하는 것 또한 반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따지는 것과 불평하는 것에 관하여 빛 비춤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의 반역을 용서해 주십시오. ... 저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경륜에 순종하여 한 가지 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제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저는 그 일을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는 것은 참된 하나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참된 하나 안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일종의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참된 하나라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는 영 안에서뿐 아니라 혼 안에서도 하나일 필요가 있다. ... 우리는 그 한 가지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한 가지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영 안에서뿐 아니라 혼 안에서도 하나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8 년, 1 권, 그리스도를 체험함, 5 장, 531-53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0 권, 요한복음 결정 연구, 13 장

3/20 수요일

아침의 누리

렘 2:13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자기들을 위해 저수조들을 팠는데 그것들은 물을 담아 둘 수 없는 새는 저수조들이었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시 36:8-9

8 그들은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적셔지며 주님은 그들에게 주님의 기쁨의 강을 마시게 하십니다.

9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의 빛 안에서 우리는 빛을 봅니다.

사 12:3-6

3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으리라.

4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5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그분께서 장엄한 일을 하셨음이라!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하여라!

6 외치며 환호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신 까닭이라.”

하나님은 생수의 원천이시다(렘 2:13). ...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이 마실 수 있는 생수의 원천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증가되시고 확장되시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생수의 원천이 되셔야 하는 이유는 그분께 경륜이 있고 그분의 경륜이 그분 자신을 위해 배필 곧 신부를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홀로 계시지 않고 그분의 아내를 얻는 것이다. 그분의 아내는 그분의 증가이자 그분의 확장이고, 따라서 남편이신 그분과 어울릴 것이다. ... 침례자 요한은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면서 “그분은 증가하셔야 하고”(요 3:30)라고 말한다. 그 앞 절에서 요한은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이라고 말했다. 30 절에 있는 증가는 29 절에 있는 신부이다.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그분의 증가이며 그분의 확대이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건축된 아담의 증가였듯이, 신부로서 하나님의 선민은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이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5-3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경륜은 그분 자신의 표현을 가지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홀로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보다 그분은 그분의 배필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신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예레미야애가 3 장 23 절 하반절은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하여 잘 알려진 찬송가 13 장의 후렴은 이렇게 말한다. “신실한 하나님 ... / 공활과 은혜가 풍성하셔 / 내 모든 필요함 다 공급하셔 ...”. 성경과 이 찬송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하여, 우리는 천연적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영적인 방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고 말할 때, 그것은 그분께서 그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시는 데 신실하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 장 9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신실하시지만, 여러분에게 큰 집이나 보수가 좋은 직업을 제공하시는 데에는 신실하지 않으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를 돌보시는 데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요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라. 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위임을 받고, 부담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지만,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었다. 예를 들어,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하자 즉시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 ...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신실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천연적인 이해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평안과 축복을 얻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우리의 안전이나 건강 또는 소유물을 잃었을 수도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고, 왜 그분께서 그들에게 역경이 닥치지 않도록 막지 않으셨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우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분 자신께 다시 돌아오도록 이끄시려는 목적에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우리의 평안과 안전과 건강과 소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수의 원천이신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데 신실하시다. ...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고 우리가 그분을 마시게 하는 것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경륜 안으로 이끄시는 데 신실하시다. 그분의 경륜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누리며,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그리스도를 동화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증가되시어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7-4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6; 이기는 자들, 2-3 장

3/21 목요일

아침의 누림

애 3:22-24

22 여호와와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24 ‘여호와와 나의 몫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렘 17:7-8

7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8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뻗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앞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고후 1:8-9

8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에 겹도록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 16:33

33 내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들을 한 것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평안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고전 10:3-4

3 모두 똑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고,

4 모두 똑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따르는 영적인 반석에서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악인의 악한 상태는 주님을 먹고 누리려고 주님께 나아오지 않는 것이다(비교사 55:1-2). 그들은 많은 일을 하지만,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취하며,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을 누리려고 나아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보다 더 악한 것은 없다.(사 57:20 각주 1)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는 대신, 이스라엘은 그들의 우상들을 마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빌론 사람들을 사용하시어 이러한 우상들을 처리하셨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과 심지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버린 성전을 파괴하셨다. 우리는 자신이 이스라엘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아야 한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데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마시도록 우리의 우상들을 처리하신다. 우리 모두는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마시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동화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배필을 통하여 자신의 표현을 얻으시려는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해 증가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4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자신의 실패 때문에 자신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 예레미야애가 3장 22 절부터 25 절까지는 ... 바빌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간 후에 기록되었다. ... 이스라엘 백성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고 그들은 끝났다고 느꼈을 것이다. 한편으로 예레미야는 울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기록하고 있었다. 예레미야는 그의 기록에서 그들이 진멸되지 않은 것은 여호와와의 자애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있었다. 왕자들과 신언자들과 제사장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다. 더욱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그분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와는 그의 몫이시며 그분께 소망을 둔다고 선포할 수 있었다. 왜 그분 안에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낙심하는 법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의가 되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음을 보아야 한다. 상황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우리의 실패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열어 준다.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고 사악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 자신을 위해 새는 저수조들을 판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의 의와 구속과 생명이 되실 것이며(렘 31:33-34), 그들의 중심과 전부가 되도록 높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셔서 그분 자신을 신성한 생명으로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어 그들의 생명이 되시고, 또한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살 수 있는 역량을 소유한 생명의 법이 되신다. 결국, 그들도 바울과 오늘날의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처럼 새 창조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는 신실하지도 순결하지도 않고 오히려 많은 다른 남편들에게로 간다. 하나님을 저버린 후, 우리는 약간의 긍휼과 은혜를 받고서 회개하며 운다. ... 우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 ... 회개한 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것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고 그분을 누리며 생수를 마시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루실 길이 있으시다. 그분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를 새 예루살렘 안으로 이끄실 길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동정이 가득하시며,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것이다. 현재 약하든 강하든 모든 믿는 이들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을 것이며, 거기에서 모든 이는 성숙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지런히 추구하든 아주 조금만 추구하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와 구속과 생명과 생명의 법과 생명의 역량이 되게 하실 길을 갖고 계신다.(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40-4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3-1974년, 1권, 고린도전서에 나타난, 몸을 위해 그리스도를 누리, 3장

3/22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2:9-10

9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이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것들이며,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도 없는 것들이다.”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10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을 통해 그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이들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고전 16:22

22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고전 13:1-8a

1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여러 언어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됩니다.

2 내가 신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 줄지라도, 또 내가 자랑거리가 되도록 나의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5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사랑은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6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8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언도 쓸모없게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도 그치고, 지식도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하시고 예비하신,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즉,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구 조건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영과 혼과 몸, 또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막 12:30)—를 절대적으로 그분께 두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온 존재가 그분으로 점유되고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결과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교통을 하며, 그분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모든 비밀을 알 수 있다(시 73:25, 25:14).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 깊고 감추어진 것들을 깨달을 뿐 아니라, 체험하고 누리고 완전히 그 안에 참여하게 된다.(고전 2:9 각주 1)

오늘의 읽을 말씀

생명은 지식이 아니고 은사도 아니며 능력도 아니다. 생명은 놀랍고 유일하며 강한 하나의 인격이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 온 기간이 이십 년이 넘었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분의 임재를 놓칠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그분을 알게 된 지 이제 오분밖에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나는 그분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얻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놓친다.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과거의 체험을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현재의 임재가 필요하다. 우리는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임재가 필요하다. 우리가 과거에 그분을 아무리 많이 알고 체험했을지라도, 우리는 늘 현재의 인격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루 종일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새롭게 접촉해야 한다.

그분은 우리 안에 살아 계신 인격이시므로 우리는 그분을 접촉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미워하고 거절합니다. 저는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저의 생명으로 취하기 위해 제 자신을 제쳐 둡니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1장, 340-341 쪽)

고린도후서 5 장 14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강권하였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향하여 살았다(고후 5:15).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도록 장비되게 하는 또 다른 항목은 그리스도의 강권하는 사랑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휩쓸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고린도후서 5 장 14 절과 15 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밀려오는 큰 파도와 같아서,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한다고 말한다. ...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류의 물살만큼 강해서 우리를 정복하고 우리를 휩쓸어 간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아래 잠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 자신의 선택이 없어진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므로 저는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홍수가 밀려올 때 우리에게는 그것을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에 관한 선택권이 없다. ...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야 한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매일 주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셔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를 기도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해 주십시오. 오, 주님! 홍수 같은 당신의 사랑에 잠기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가운데 젊은 성도들은 그들이 오늘 주님을 사랑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체험에서 여전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들이 선택하고 취할 수 있는 여러 방향의 길들이 남아 있다. 그들에게 여러 선택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단 홍수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잠기면 모든 선택을 잃어버린다.(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6장, 256-25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권, 아가에 묘사된 생명과 건축, 1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7년, 2권,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 6장

3/23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고전 13:4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딤후 1:7

7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고전 12:31

31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내가 또한 가장 뛰어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요일 4:7-12

7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압니다.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2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마지막 절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라는 것을 계시한다(31 하절).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는가? ... 어떻게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들을 목양하는가?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이다. 사랑은 신언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뛰어난 길이다. 사랑은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권, 활력 그룹, 8장, 168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성령에 의해 거듭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우리 사람의 영이다. 이 영은 사랑의 영이다. 따라서 그것은 능력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다(딤후 1:7). 우리는 자신이 아주 능력이 있고 맑은 생각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사랑의 영이 아니다. 우리는 능력과 맑은

생각으로 충만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하지만, 우리의 말은 그들을 겁먹게 한다.

바울은 우리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딤후 1: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된 은사는 그분의 영과 생명과 본성이 있는 거듭난 우리 사람의 영이다. 우리는 이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영을 분발시켜 불타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12장 11절은 우리가 영 안에서 불타야 한다고 말한다. ... 우리는 손상을 주는 불타는 권위의 영이 아니라 불타는 사랑의 영을 가져야 한다.

내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 대부분의 동역자에게 있는 사랑의 영은 사랑의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이다. 오늘날의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그보다 우리는 항상 사랑의 영을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고, 이러한 사랑의 영으로 말하고 행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복 안에 필요한 것이다.

사랑은 이긴다. 우리는 모든 사람, 심지어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동역자들과 장로들이 형편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 할 일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차별도 없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같이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마 5:48).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 그분의 종(種)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처럼 온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어떻게 동역자와 장로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모든 면에서 사랑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한다. 주 예수님은 자신이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해 의사로 왔다고 말씀하셨다. 주 예수님은

“강건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마 9:12)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경찰서나 사람들을 재판하는 법원이 아니라 믿는 이들을 양육하는 집이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그들에게 더 많은 양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 교회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랑이 가득한 집이다. 교회는 또한 병든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병원이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해가 부족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하는 학교이다. 교회가 집이자 병원이자 학교이기 때문에, 동역자들과 장로들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죄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경찰서이거나 그들을 재판하는 법원이다. 바울의 태도는 이와 같지 않았다. 그는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고후 11:29 상)라고 말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왔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요 8:7)라고 말씀하셨다. 그들 모두가 떠난 후에 주님은 죄 있는 여인에게 “여인이여,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대를 유죄판결 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라고 물으셨다. 그 여인은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주님은 “나도 그대를 유죄판결 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셨다(요 8:10-11).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구인가? 온전한 사람이 누구인가? ... 우리는 다른 사람은 약하지만 자신은 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덮어주고 건축한다. 그러므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가장 뛰어난 길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8 장, 166-167, 169-17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9 권, 활력 그룹, 4, 8 장; 시편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1-12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

3/24 주일

아침의 누림

고전 1:10, 17-23, 31

10 형제님들,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

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침례를 주도록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8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9 성경에도 “내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 버리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물리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21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22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시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십니다.

31 이것은 성경에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고전 2:1-2

1 형제님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탁월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까.

2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찬송: 477 (英) 베들레헴에 주님 (中:366)

1 베들레헴에 주님 태어나셨지만-
주 네 안에 나셔야 네 혼 구원되리
골고다의 십자가 네 혼 못 구하리
네 안의 십자가만 널 온전케 하리

(후렴)

네 맘에 받아들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자아 대-하여 죽고 주 대하여 살도록.

2 네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네가 돼-
주 사랑하려나- 흠 사랑하려나
주 채우면 주 되고 흠 채우면 흠 돼
네 자신 비울 때에 주 만유 채우리

3 주 아는 가까운 길 이는 사랑일세-
지식을 따를 땐- 늘 해매게 되네
주 사랑 네 맘 속에 충만케 될 때에
세상 다 물러가고 거룩케 되리라